

고대산문화의 묘제와 장속특징에 대한 검토*

— 하가점하층문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오 대 양**

Ⅰ 국문초록 Ⅰ

본고에서는 고대산문화와 하가점하층문화의 묘제 및 장속특징을 비교하여 두 문화의 상관성 및 교류상에 대한 의미를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고대산문화의 묘제는 크게 토광묘, 목관묘, 석관묘, 옹관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토광묘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葬法은 주로 單人의 側身屈肢葬이 많지만 仰身直肢葬과 俯身葬 및 남녀 합장묘도 소수 확인된다. 하지만 개별유적별로 살펴보면 지역특성에 따라 채용된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가 간취된다. 먼저 부신지역에서는 측신장과 양신장계열의 무덤이 고르게 확인되어 하가점하층문화와 유사한 반면 나머지 유적에서는 측신굴지장의 비율이 앞도적인 우세를 보인다.

또한 부신지역에서는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面向과 副葬品의 종류가 차이를 보이거나 壁龕을 설치하여 토기와 동물의 골격을 함께 부장하는 등 두 문화의 장속이 복합된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여기에는 단순히 문화적인 교류상을 넘어 혼인과 같은 종족적 결합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자료로서 두 문화 주민들의 형질 특징이 복합적으로 확인되는 代海遺蹟과 界力花遺蹟의 인골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하가점하층문화의 후반기 대릉하구역의 주민 중 일부가 부신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고대산문화의 주민과 한동안 공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平頂山 III기층에서 위영자문화가 등장하기 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신지역에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하가점하층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부신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두 문화간의 유사성과 교류상은 주로 혼인과 같은 주민집단의 유입에 기반을 두었으며, 하가점하층문화의 소멸이후 부신지역에서 고대산문화와 공생하였던 잔류세력이 재차 대릉하구역으로 파급되면서 위영자문화의 형성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고대산문화, 하가점하층문화, 위영자문화, 부신지역, 대해유적, 대전자유적

* 이 연구는 2016년도 단국대학교의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다.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전담조교수 / uhps@hanmail.net

| 목 차 |

I. 머리말	IV. 하가점하층문화와의 비교
II. 그간의 조사성과	V. 맺음말
III. 무덤의 구조와 장속특징	

I. 머리말

高臺山文化는 遼河 平原地域에서 전개된 초기 청동기시대문화로 1973년 新民 高臺山遺蹟의 발굴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¹⁾ 조사 당시에는 문화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新樂 上層文化로 인식되었으나 조사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주변지역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독립적인 문화유형으로 인정받게 된다.²⁾

이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묘실내부에서 발견되는 壺와 鉢의 조합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붉은색의 마연 토기(壺) 상부로 高足鉢 혹은 碗 등이 덮여진 채로 발견되며, 부장위치는 묘실의 발치쪽이라는 공통성을 보인다. 또한 무덤의 구조는 대부분 평면 장방형의 토광묘계열로서 葬法은 單人의 側身屈肢葬으로 매장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주요 유적으로는 新民 高臺山, 公主屯 后山遺蹟, 彰武 平安堡遺蹟, 法庫 灣柳遺蹟, 葉茂臺遺蹟, 阜新 平頂山과 勿歡池遺蹟 등이 있다.

그런데 최근 발굴된 阜新 代海遺蹟에서는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형태의 무덤자료가 확인되면서 관련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적에서는 2009년 발굴을 통해 이 지역 초기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무덤 62기가 조사되었는데 관련유적 중 이처럼 보존상태가 좋으며 자료가 풍부하게 수록된 무덤유적의 보고는 사례가 드물어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무덤의 기본 구조와 부장풍습이 위에서 언급한 고대산문화의 주요특징과 맥락을 같이하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 동시기 遼西地域에서 병행된 夏家店下層文化와 강한 유사성이 확인되는 점이다. 예를 들면, 묘실내 壺와 鉢의 조합관계와 함께 하가점하층문화의 삼족기(鬲)가 공반되거나 묘광 한쪽으로 壁龕이 조성된 점,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面向을 다르게 한 점 등에서 기존에 알려진 고대산문화의 葬俗과 차이가 있다. 아직까지 이 지역 청동기시대의 무덤유적만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연구성과가 없는 관계로 보다 심층적인 면에서의 비교가 어렵다. 하지만 유적내 무덤과 동일 층위 상에서 조사된 灰坑과 灰溝 등의 문화속성이 모두 고대산문화에 귀속되는 관계로 대해유적의 기본적인 성격은 고대산 문화에 포함될 수 있다.³⁾

대해유적이 위치한 곳은 遼寧省 阜新市 舊廟鎮 代海村 일대로 요하의 중하류지역에 속한다. 이곳은 하가

1)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瀋陽新民縣高臺山遺址」, 『考古』 2, 1982; 新民縣文化館·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新民高臺山新石器時代遺址1976年發掘簡報」, 『文物資料叢刊』 7, 1983;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新民東高臺山第二次發掘」, 『遼海文物學刊』 1, 1986.

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遼寧彰武平安堡遺址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1989.

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代海墓地』, 文物出版社, 2013, 110~124쪽.

점하층문화와 고대산문화, 魏營子文化 등이 일련의 시간차를 두고 공존하였던 지역으로 세문화가 접변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하가점하층문화의 소멸과 그 후속문화의 전개과정 중에는 고대산문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파악된다.⁴⁾ 따라서 제문화요소가 복합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지역 무덤자료의 분석은 요하유역에서 전개된 초기 청동기문화의 흐름과 상호 연관성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유적들과 함께 최근 진행된 부신지역의 조사성과를 종합하여 고대산문화의 묘제와 장속특징을 살펴보겠다. 더불어 동시기 요서지역에서 병행된 하가점하층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상관성 및 교류상의 대개를 파악하고, 나아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추적해 보겠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미진하였던 이 지역 초기 청동기시대 무덤유적의 성격과 상호 연관성문제를 고찰하는데 있어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며, 주변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연구에 비해 연구가 덜 된 분야임에 한 의의가 있다.

II. 그간의 조사성과

고대산문화는 요하 중류지역에서 전개된 초기 청동기문화이다. 문화의 주요 분포범위는 요하의 서쪽 지류인 柳河流域에 집중되는데 동쪽으로는 요하를 넘지 않으며, 서북쪽은 부신지역까지, 동북쪽은 법고현 일대, 남쪽은 신민 고대산지역에 한계를 둔다.⁵⁾ 또한 동시기 병행된 주변문화와의 관계를 보면 동쪽으로 瀋陽 新樂 上層文化와 접경하고, 동남쪽은 本系 馬城子文化, 동북쪽의 康平 順山屯類型 및 서북쪽의 부신시일대 하가점하층문화와 교차 분포한다.⁶⁾ 발굴자료를 통해 측정된 방사성 탄소연대는 기원전 17~13세기 사이에 집중되어 그 중심연대는 대략적으로 요서지역의 하가점하층문화 후반기 및 위영자문화 초기단계와 병행된 것으로 평가받는다.⁷⁾

유적은 대체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하며 주거유적과 무덤구역이 기본적으로 분리된 특징을 보인다.⁸⁾ 주거지는 자리한 곳의 지형에 따라 규모를 달리하며, 평면 형태는 원형과 장방형, 반지하식과 지상식건축으로 구분된다. 또한 주거면 주변으로 고랑을 파두었는데 그 주변에서는 불로 구워 만든 흙벽돌이 발견되어 벽체시설의 무너진 흔적으로 추정된다.⁹⁾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모래가 섞인 홍색과 회갈색 및 황갈색 토기

4) 朱永剛, 「論高臺山文化及遼西青銅器文化關係」, 『中國考古學會 第8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91, 1903~1905쪽; 董新林, 「高臺山文化研究」, 『考古』 6, 1996, 60~62쪽; 송호정, 「고대산문화를 통해 본 요서와 요동의 역사·문화적 관계」,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20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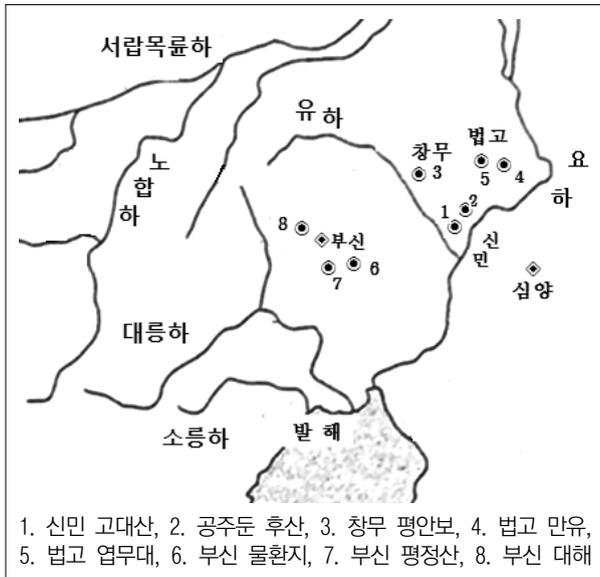
5) 복기대, 「고대산문화에 대하여」, 『백산학보』 65, 2003, 8쪽.

6) 董新林, 앞의 논문, 1996, 52쪽.

7) 郭大順·張星德, 『東北文化與幽燕文明』, 江蘇教育出版社, 2005, 337~338쪽; 董新林, 앞의 논문, 1996, 59쪽.

8) 華陽·付珺·霍東峰, 「新樂上層文化墓葬淺析」, 『東北史地』 2, 2009, 40쪽.

9) 복기대, 앞의 논문, 2003, 10쪽.



〈지도 1〉 고대산문화 관련유적 분포도

범고 엽무대유적에서는 명확한 형태의 무덤유구가 조사되진 않았지만 출토유물 중 붉은색의 호형토기 상부로 鉢이 덮여진 상태의 토기조합이 확인되어 관련유구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¹⁾

먼저 신민 고대산유적의 발굴은 1973~74년,¹²⁾ 76년,¹³⁾ 79~80년¹⁴⁾ 등 모두 3차례 걸쳐 이루어졌다. 고대산은 西高臺山, 要高臺山, 東高臺山 등의 연접한 3개의 산줄기로 구성되는데 이중 요고대산과 동고대산의 남사면 대지상에서 灰坑과 窯址를 비롯한 다수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요고대산유적에서는 1973년 모두 7기의 무덤(731~737호)이 발굴되었으며,¹⁵⁾ 1974년 5기(741~745호), 1976년에는 13기의 무덤(76M1~13)이 추가로 조사되어 총 25기의 무덤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무덤들은 모두 평면 장방형의 토광묘계열로서 무덤의 장축방향은 대체적으로 남북향이며, 두향은 북쪽인 것이 많다. 발굴된 25기의 무덤 중 명확한 장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단 4기에 불과한데 모두 단인의 측신굴지장으로 공통적이다. 동고대산유적에서는 1979~80년 사이 무덤 54기가 발굴되었다. 무덤의 기본적인 구조는 요고대산유적과 유사하지만 일부의 대형무덤 중에는 묘광내부로 2層臺를 설치(80M105)하거나 혹은 목관이 부가된 사례(80M79)도 확인되어 구조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장법은 굴지장과 직지장 등으로 나뉘며, 굴지장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 무덤의 장축방향은 남

중심이며 고운 모래질의 적색마연토기(紅衣陶)도 소량 확인된다. 종류에는 鬲, 鼎, 甗, 甗, 瓮, 罐, 壺, 鉢, 豆, 碗 등이 보편적이다. 대부분 무문이고, 각종형태의 손잡이가 발달하였으며, 소량의 附加堆紋, 刺點紋, 三角紋과 鋸齒紋 등이 확인된다.¹⁰⁾

모지는 대부분 주거구역 부근에 위치하며 일정한 구획을 가지고 열을 지어 분포한 특징을 보인다. 지금까지 발표된 고대산문화의 무덤자료는 모두 8개 유적에서 대략 200여기 정도이다. 고대산유적에서 총 79기가 보고되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신 대해유적의 62기, 물환지유적의 35기, 평안보유적 17기, 평정산 5기, 후산유적 3기, 만유유적 1기 등이 있다. 이외에

10) 董新林, 앞의 논문, 1996, 52~53쪽.

11) 鐵嶺地域藝術館, 「遼北地區原始文化遺址調查」, 『考古』 2, 1981.

12)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瀋陽新民縣高臺山遺址」, 『考古』 2, 1982.

13) 新民縣文化館·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新民高臺山新石器時代遺址1976年發掘簡報」, 『文物資料叢刊』 7, 1983.

14)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新民東高臺山第二次發掘」, 『遼海文物學刊』 1, 1986.

15) 이외에 일련의 토기조합을 보이는 유구가 확인되어 6기의 무덤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M7308~73013) 되지만, 이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북방향이 절대다수이며, 두향은 북쪽에 둔 것이 많다.

신민 공주둔 후산유적은 1980년 발굴되어 고대산문화에 속하는 주거지 1기, 회갱 7기, 무덤 3기가 발굴되었다.¹⁶⁾ 유적내 지층관계는 전체 5개의 층위로 구분되며, 3층과 4층이 고대산문화에 해당된다. 이중 무덤 3기는 모두 4층의 하부에서 조사되었으며, 3층과 4층내부에서 주거지와 회갱 등이 조사되었다. 발굴된 3기의 무덤은 모두 장방형의 토광묘계열이며, 시신은 단인의 측신굴지장으로 매장되었다. 부장품은 묘광 발치쪽에서 壺와 鉢 등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정확한 출토양상은 알 수 없다.¹⁷⁾

창무 평안보유적은 1983년과 1988년 2차례에 걸쳐 시·발굴되었다.¹⁸⁾ 조사구역은 I~Ⅲ구 등 크게 3구역으로 나뉘며, 발굴을 통해 확인된 층위관계에 따라 전체 3시기로 구분되었다. 이중 제3기 문화층이 고대산문화에 속하며 조사구역 I구와 II구에서는 주거지 8기와 회갱 172기가, 제Ⅲ구에서는 무덤 13기가 조사되어, 주거구역과 무덤구역이 분리된 현상을 보인다. 이외에 제I구의 1001호 주거지(F1001)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어린아이의 유골이 담겨있는 옹관 1개(M1001)와 3기의 무덤(M1002~1003)이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모두 어린아이의 무덤으로 판별되었다. 인골은 모두 부식되어 명확한 장법은 알 수 없으며 골격 주변으로 罐, 碗, 杯 등 소형토기 1점씩이 놓여 있었다. 제Ⅲ구의 무덤구역에서 확인된 13기 무덤 중 4기는 어린아이의 무덤이며, 나머지 9기는 성인의 무덤이다. 기본적인 구조는 평면장방형의 토광묘계열로 모두 단인의 측신굴지장으로 매장되었다. 묘실내부에는 모두 인골의 발치쪽으로 1~5점 사이의 토기가 부장되며 개별적으로 장식품 1점씩이 공반되기도 한다. 토기의 종류는 壺, 鉢, 碗, 罐 등이며 대부분 발과 碗이 壺의 상부에 덮인 채로 출토되었다.

법고현 만유유적은 1979년 처음 발견되었다.¹⁹⁾ 이후 1987년부터 89년까지 두차례에 걸친 시·발굴조사를 통해 고대산문화의 회갱 7기와 무덤 1기, 주거지 1기 등이 확인되었다.²⁰⁾ 유적내 문화퇴적은 전체 3개의 층위로 구분되는데 이중 제2층과 3층이 고대산문화층에 해당된다. 제2층에서 회갱과 주거지가, 제3층에서 무덤 1기와 회갱 등이 조사되었다. 문화퇴적층이 전반적으로 매우 얇고, 출토유물의 차이가 거의 없어 양자의 시간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된 무덤 1기의 구조는 평면 장방형의 토광묘계열로서, 길이 1.8m, 너비 0.9m, 깊이 0.4m, 두향은 동쪽을 향한다. 인골의 부식이 심해 정확한 장법은 알 수 없으며, 부장품은 인골의 허리부분에서 鉢 1점이 출토되었다.

부신 평정산유적은 1988~1989년 2차례의 시·발굴조사를 통해 전체 3개의 문화 층위가 확인되었다.²¹⁾

16) 新民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新民縣公主屯後山遺址試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 1987.

17)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은 매우 소략한 관계로 유구간의 중복관계 및 출토유물 양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더불어 본문 중의 설명과 결론의 분석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데 특히 무덤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곳곳에서 誤記가 확인되는 등 보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1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遼寧省武縣平安堡遺址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198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遼寧省武縣平安堡遺址』, 『考古學報』 4, 1992.

19) 曹圭林·許志國, 『遼寧法庫縣灣柳街遺址調查報告』, 『北方文物』 2, 1988.

20) 遼寧大學歷史系考古教研室·鐵嶺市博物館, 『遼寧法庫縣灣柳街遺址發掘』, 『考古』 12, 1989; 鐵嶺市博物館, 『法庫縣灣柳街遺址試掘報告』, 『遼海文物學刊』 1, 1990.

2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遼寧省阜新平頂山石城址發掘報告』, 『考古』 5, 1992.

그 중 제Ⅰ기층은 하가점하층문화에 해당되며 주거지와 회갱, 무덤 등이 조사되었다. 무덤은 109호로 편호된 1기가 발굴되었는데 평면 장방형의 토광묘계열로서 토광 상부에는 몇 개의 석판을 덮어 마감하였다. 부장품은 壺 1, 罐 2, 盃 1 등 모두 4점의 토기가 인골의 발치쪽에 놓여있었다. 제Ⅱ기층은 고대산문화에 속하며 102호, 103호, 106~108호 등 무덤 5기가 발굴되었다. 이중 106호와 108호 무덤은 묘실 한쪽 혹은 4벽 전체에 석재를 쌓아 토광벽을 보강한 구조이며, 나머지 3기는 토광묘계열로서 묘광 상부에 판석재를 덮어 놓았다. 이상 5기의 무덤은 모두 단인장에 속하며 장법은 측신굴지장과 측신직지장, 양신직지장 등 3종류가 확인되었다. 부장품은 모두 토기만 확인되며, 종류는 壺, 高足鉢, 罐, 盃 등이 있다. 제Ⅲ기층은 위영자문화에 속하며 101호, 104호, 105호, 301~303호 등 무덤 6기와 회갱 26기가 조사되었다. 발굴된 6기의 무덤은 모두 단순 토광묘이며 장법은 105호에서 측신직지장이, 301호에서 양신직지장 등이 확인되었다. 부장품은 303호 무덤에서만 2점의 소형 토기(罐)가 출토되었을 뿐이다.

부신 물환지유적은 1992년 발굴을 통해 수로로 판단되는 구상유구(灰溝) 17줄, 무덤 35기가 조사되었다.²²⁾ 무덤구역은 여러 개의 수로(溝)가 연결되어 장방형으로 구획된 대지상에 위치하며, 발굴된 35기의 무덤은 서로 중복관계가 없이 열을 지어 분포한다. 모두 장방형의 토광묘로서 평균 길이는 1.8~2.9m, 너비는 0.7~1.15m, 깊이 0.3~1.1m 전후이며 장축방향은 대부분 동서향이다. 전체 중 18기의 무덤에서 인골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두향은 서쪽을 향하여, 면향은 남쪽, 장법은 단인의 측신굴지장이 많았고, 소량의 양신식지장도 확인되었다. 성별과 연령의 판단이 가능한 무덤 중 9기는 남성묘, 5기는 여성묘이며, 성별의 판별이 불가능한 무덤 4기 중 2기는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토기 위주이며, 가장 많은 것은 10점, 적은 것은 1~2점씩 부장된다. 종류는 壺, 高足鉢, 罐, 碗, 杯, 방추차, 석도, 조개장식, 뼈제품, 舟形器, 銅環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高足鉢 혹은 碗 등이 壺의 상부에 덮여진 채로 확인되는데 묘광내 발치쪽 단면을 1~3층 정도로 계단식 分層을 하여 유물을 부장한 현상과 여성의 무덤에서만 방추차가 발견되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부신 대해유적은 2009년 발굴을 통해 무덤 62기, 회갱 30기, 구상유구(灰溝) 4줄이 확인되었다.²³⁾ 발굴된 62기의 무덤은 동북-서남방향으로 열을 지어 분포하며 개별 무덤 간에 중복현상은 없다. 전체 무덤구역의 주변으로는 구상유구 4줄이 돌아가는데 묘지가 자리한 곳의 특성상 강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고자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무덤의 종류는 모두 평면 장방형의 토광묘계열로서 보고서에서는 발굴된 무덤들의 구조적 차이에 따라 크게 甲과 乙 2종류로 분류하였다.

먼저 甲類의 무덤은 묘광 내부 단면 한쪽(시신의 발치쪽)으로 유물을 부장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시설물이 존재하는 형태이다. 이들은 다시 조성방식에 따라 A·B·C 3類로 구분된다. 甲A類(器物坑式: 28기)는 토광 상부의 남쪽면에 작은 구덩을 파서 부장품을 놓아 둔 형태이다. 甲B類(器物臺式: 6기)는 토광 남벽(短壁)의 전면을 삭평하여 단을 조성한 후 유물을 놓아 둔 형태, 甲C類(壁龕式: 2기)는 토광 남벽의 중간부분으로 벽감을 조성하여 그 안쪽에 유물을 부장한 형태이다. 또한 乙類의 무덤은 단순 토광묘계열로 유물의 부장

22) 辛巖, 「阜新勿歡池遺址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1997.

2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앞의 책, 2013.

방식에 따라 다시 2가지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乙A類(分層式: 3기)는 토광내 채움토를 2층으로 분층하여 유물을 부장하며, 乙B類는 이상에서 살펴본 특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단순 토광묘로서 총 22기가 확인되었고 이중 8기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이외에 무덤 남부가 회갱에 의해 파괴되어 유물의 부장양상을 알 수 없는 무덤 1기가 있다. 부장품은 54기의 무덤에서 확인되었다. 종류를 보면 토기와 청동기(鏃2, 環1), 조개제품 및 장식품 등 모두 157점이며 이중 토기가 전체 143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유물이 출토된 54기의 무덤에선 모두 토기가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2~3점에서 많은 건 6점까지 확인된다. 토기의 종류로는 罐, 鉢, 壺, 甗, 盃 등이 있다. 이중 甗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기는 붉은 색으로 마연된(紅陶衣) 특징을 보이며, 토기의 재질은 소수의 甗과 鉢 중에 고운 진흙질의 토기가 있으며 대부분은 모래섞인 토기이다. 문양은 단 1점의 罐 하부에 細繩紋이 새겨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문의 붉은색 계통이다. 이외에 개의 머리뼈와 돼지의 발굽 등이 묘광 남단의 발치쪽에 부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Ⅲ. 무덤의 구조와 장속특징

그동안 발표된 고대산문화 관련 무덤자료는 고대산유적, 대해유적, 물환지유적, 평안보유적, 평정산유적, 후산유적, 만유유적, 엽무대유적 등 모두 8곳에서 대략 200여기 가량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발굴조사 후 정식으로 보고서가 출간된 유적은 대해유적 1곳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약보고서의 형식으로 일부의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된 정도이다. 따라서 고대산문화의 무덤 구조와 장속특징을 분석하는 데에는 가장 많은 자료가 발표된 대해유적을 중심으로, 나머지 유적들과의 비교검토를 진행하겠다.

1. 형식과 구조특징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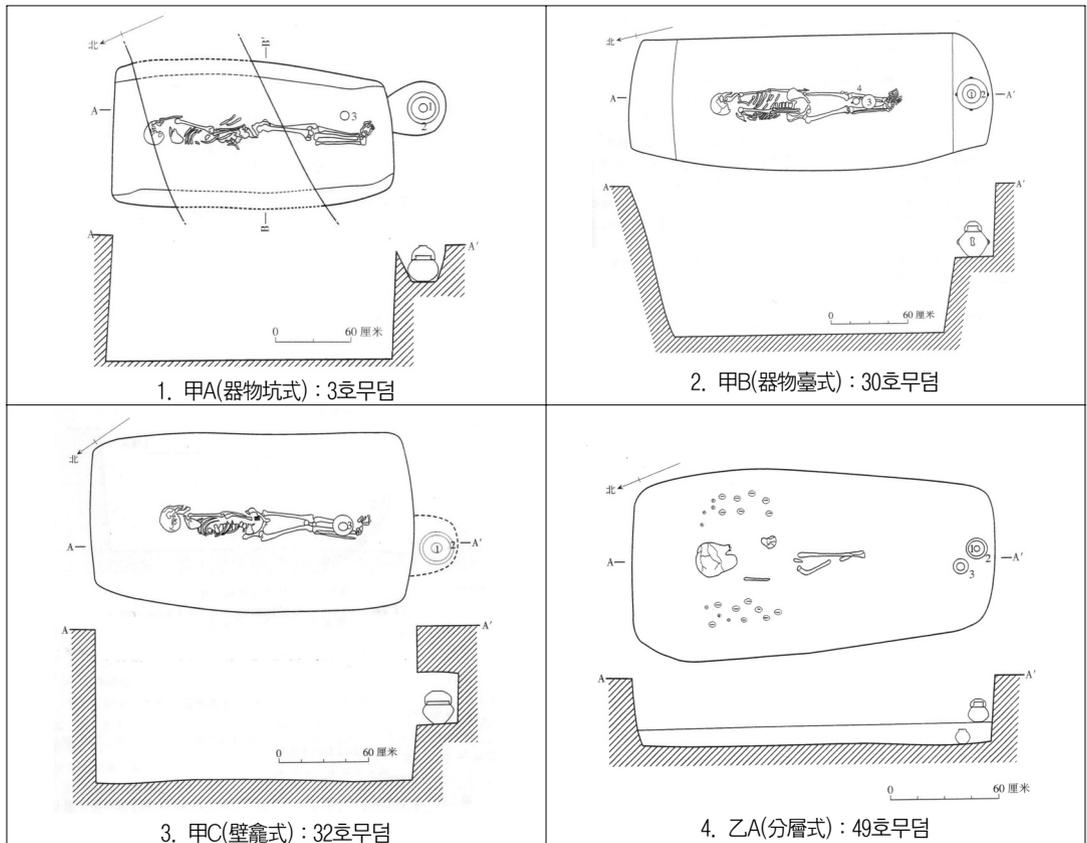
현재까지 확인된 고대산문화의 무덤 형식은 크게 토광묘, 목관묘, 석관묘, 옹관묘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토광묘계열의 무덤은 고대산문화의 대표적인 묘제로서 현재까지 발굴된 대부분의 관련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묘광내부에 석재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별도의 棺·郭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고 토광자체가 묘실로 이용되고 있다. 고대산유적에서 발굴된 79기의 무덤 중 목관이 부과된 1기의 무덤과 평안보유적의 17기 중 옹관묘 1기, 평정산유적에서 보고된 석관묘계열의 무덤 2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토광묘에 해당된다.

먼저 가장 많은 자료가 발표된 대해유적의 경우 발굴된 62기의 무덤 모두 토광묘로 분류되었다. 평면은 장방형이며 평균 길이 2.10~2.40m, 너비 0.8~1.1m, 깊이는 0.15~0.4m 전후이다. 보고서에서는 묘실의 세부적인 구조 차이에 따라 크게 갑과 을 2종류로 분류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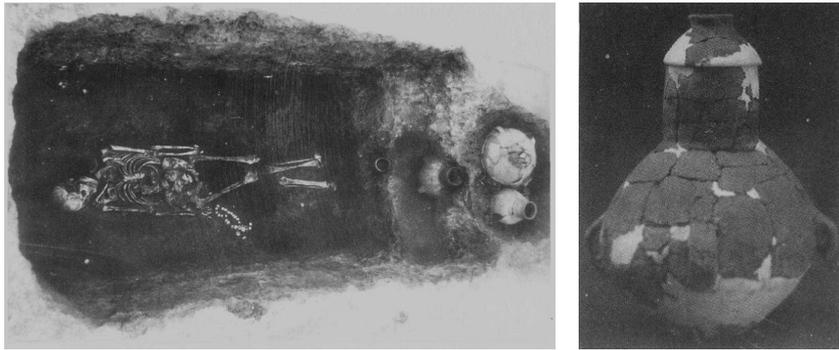
〈표 1〉 대해유적의 토광묘 형식분류 및 특징

유형	기수	번호	특징
甲	A : 器物坑式	28기	2~5, 8, 9, 13, 15, 17, 18, 21, 22, 25, 26, 28, 29, 31, 34, 35, 39, 41, 44, 45, 47, 53, 57, 59, 61호
	B : 器物臺式	6기	30, 37, 38, 40, 55, 56호
	C : 壁龕式	2기	16, 32호
乙	A : 分層式	3기	27, 49, 50호
	B : 單純土壙	22기	1, 6, 7, 10~12, 14, 19, 20, 23, 24, 33, 36, 42, 43, 46, 48, 51, 52, 58, 60, 62호
기타	파괴	1기	54호



〈도 1〉 대해유적의 토광묘 형식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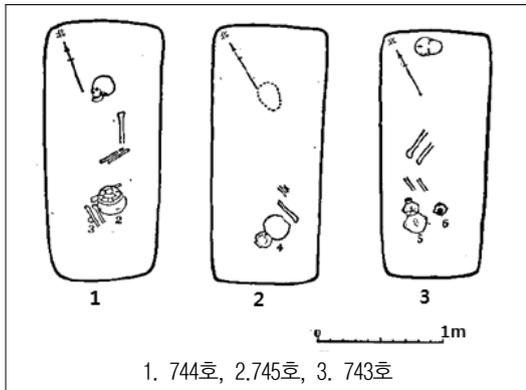
첫 번째 갑류의 무덤은 묘실의 단벽 한쪽으로 부장품만을 놓기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한 구조로 모두 36기가 발견되었다. 두 번째 을류의 무덤은 별도의 부장공간이 없이 토광내 시신의 발치쪽에 유물을 부장한 형태로 모두 25기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두 유형 모두 부장품은 시신의 발치 쪽에 놓아두며 대부분 壺와 鉢 상부로 鉢이 덮여져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런데 첫 번째 갑류의 무덤은 유물의 부장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 특히 갑C류의 경우 단벽 한쪽에 벽감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고대산문화의 장속과 차이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구조의 무덤은 이웃한 하가점하층문화 단계에서 비교적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해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반면 을류의 무덤은 기본적으로 고대산문화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중 을A류로 분류된 3기의 무덤은 묘실내 채움토를 2단으로 분층하여 유물을 부장한 점에서 특징적인데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존에 잘 알려진 부신 물환지유적에서도 찾아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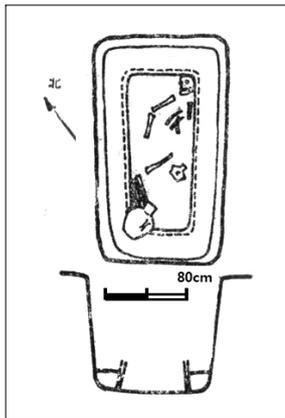
〈도 2〉 물환지유적 15호무덤 발굴 후 모습(左) 및 壺와 鉢의 조합양상(右)

물환지유적은 대해유적에서 동남쪽으로 약 30km 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발굴된 35기의 무덤은 모두 평면 장방형의 토광묘계열로서 묘실내 유물을 분층하여 부장한 점, 묘지 주변으로 여러 개의 구상유구(灰溝)가 배치된 점에서 대해유적과 닮아 있다. 무덤내 유물의 배치양상을 보면 토광내부 시신의 발치쪽 단면을 모두 2단에서 3단으로 분층하여 평균 4~6점 가량의 토기를 부장하였다. 그런데 보고서에 제시된 15호 무덤의 사진을 보면 토광의 단면 한쪽을 계단식의 3단구조로 굴착을 하였고, 각 단면의 중앙부에는 다시 구멍을 파서 유물을 부장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해유적의 을A류와 같이 단순히 채움토를 2단으로 채운 후 각각 유물을 부장한 것²⁴⁾과는 차이가 있고, 오히려 갑A와 B류가 복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을A류의 분층 방식 역시 인골의 발치쪽으로 유물을 부장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대해 갑A·B·C류 및 물환지15호와 동일한 성격, 즉 벽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24) 대해유적에서 을A류로 분류된 3기의 무덤 중 27호와 50호는 묘광내부에 채워진 제1층 채움토에서는 인골만 확인되었고, 제2층의 채움토 발치쪽에서 壺와 鉢의 세트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49호는 제1층 채움토 내부의 인골 상반신 주변으로 각종 조개장식을 펼쳐 놓았고, 시신의 발치쪽에는 小形壺 1점을 부장하였다. 그리고 제2층의 채움토 내부 시신의 발치쪽으로 壺와 鉢의 세트관계가 확인된다.



〈도 3〉 요고대산유적 토광묘 평면도



〈도 4〉 동고대산유적 목관묘 평·단면도(80M79)

고대산유적에서는 요고대산과 동고대산의 남사면 대지상에서 79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이중 요고대산유적에서 발굴된 25기의 무덤은 모두 단순 토광묘로 보고되었으며, 평균길이는 2m, 너비 1m, 깊이는 0.25~0.5m 전후이다. 동고대산유적에서는 모두 54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보고된 내용이 매우 소략한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요고대산유적과 동일한 토광묘계열로 판단된다. 보고서에서는 묘실 규모와 부장품 수량에 따라 발굴된 54기의 무덤을 대·중·소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대형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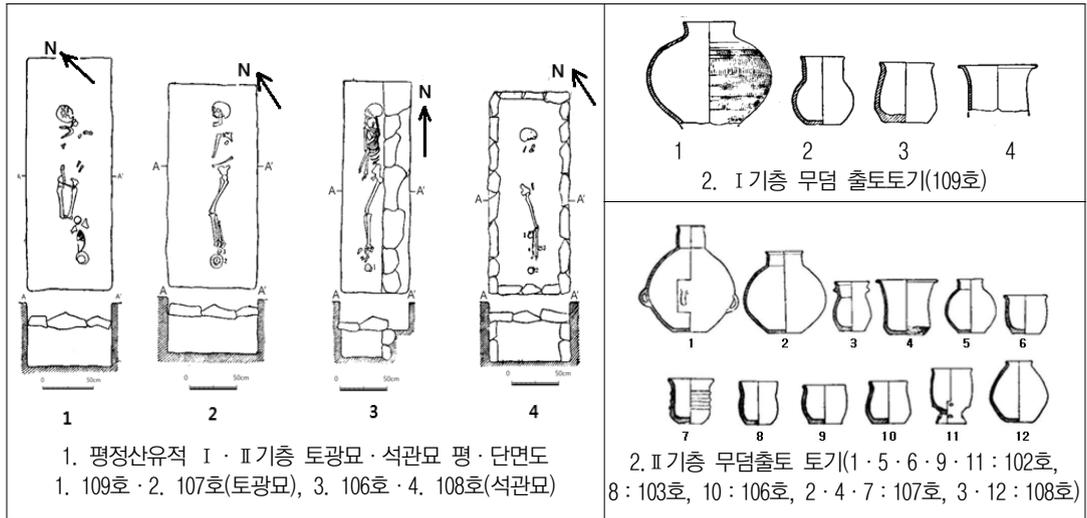
(26% : 14기)은 평균 길이 2m, 너비 1.3m, 깊이 1m 이상이며, 주로 무덤 구역 북쪽에 배치되었다. 중형무덤(51% : 28기)은 길이 2m, 너비 1m, 깊이가 0.6m 정도, 소형무덤(23% : 12기)은 길이 1.5m, 너비 1m 미만의 묘광이 좁고 얇은 무덤들이다. 이중 대형무덤으로 분류된 무덤 중에는 묘광내부에서 2층대와 목관의 흔적 확인되기도 한다. 이외에 평안보, 평정산, 후산, 만유유적 등에서 발굴된 토광묘 역시 위의 동고대산유적의 중·소형 무덤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대산문화의 토광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순 토광형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모든 유적에서 확인된다. 두 번째는, 묘실내 발치쪽으로 벽감(器物臺와 坑포함) 및 채움토의 분층을 통해 부장품의 전용공간을 마련한 구조로 부신일대의 유적에서만 확인된다.

두 번째, 목관묘는 동고대산에서 1980년 발굴된 79호무덤(80M79)단 1기의 사례만 보고되었다. 무덤이 위치한 자리는 묘지내에서 비교적 해발고도가 높은 북부묘역에 해당된다. 구조를 보면 묘광내부로 황토를 다져 만든 너비 25cm, 높이 23cm 정도의 2층대를 설치하였고 그 안쪽에 목관을 세워 목관을 두었다. 조사 당시 목관은 대부분 부식되어 흔적만 남은 상태였는데, 목관의 두께는 2cm, 높이 30cm, 바닥으로 3cm 정도의 목판회가 잔존하였다. 목관의 길이는 1.65m, 너비 0.9m, 높이 0.6m이며, 토광의 길이는 2.3m, 너비 1.38m, 깊이 1.2m 정도로 대형무덤에 속한다. 동고대산에서 보고된 이러한 대형 무덤 중에는 묘광 안쪽으로 황토를 다져만든 2층대가 설치된 무덤이 존재하는데(80M105),²⁵⁾

25) 1980년 발굴된 105호 무덤(80M105)은 조사당시 묘광의 남쪽이 파괴된 상태였으며 잔존 길이는 2.2m, 너비 1.6m, 깊이는 0.9m 정도로 대형무덤에 속한다. 묘광내부로 너비 40cm, 높이 55cm 정도의 황토를 다져만든 2층대를 두었고, 부장품은 묘실 동북쪽에 壺 1점과 鉢 1점이 공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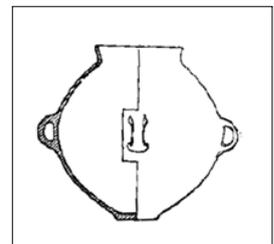
쉽게 부식되는 목재의 특성상 유사한 규모와 구조를 보이는 무덤들 중에는 본래 목관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도 5〉 평정산유적 I·II기층 토광묘·석관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세 번째 석관묘는 부신 평정산유적에서 보고되었다. 평정산유적은 하가점하층문화 - 고대산문화 - 위영자 문화로 연결되는 3개의 문화 층위가 확인된다. 그 중 제 I기층인 하가점하층문화에서는 1기의 무덤(109호)이 발굴되었는데 평면 장방형의 토광묘로서 묘방 상부에는 여러 개의 석관이 덮여져 있었다. 제 II기층의 고대산문화에 속하는 무덤은 모두 5기로 이중 106호와 108호가 석관묘에 속한다. 먼저 106호는 장방형으로 굴착한 토광내부의 동벽쪽으로 생토를 파서 2단굴광을 조성하였으며, 광벽을 따라 다시 2층으로 석재를 쌓은 후 묘실 상부에는 편평한 석재를 덮어 마감하였다. 묘실의 길이는 2.3m, 너비 1m, 깊이는 0.6m이다. 108호는 토광 4벽 모두 석재를 2층으로 쌓아 석관을 조성 한 후, 그 상부에도 다시 편평한 석재를 덮어 마감하였다. 석관의 길이는 2.2m, 너비 0.9m, 깊이는 0.65m 정도로 2기 모두 대형무덤에 속한다. 이외에 나머지 3기는 묘실은 토광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지만 무덤 상부에는 1층으로 석재를 덮어 놓은 점에서 특징적이며, 제 I기층의 무덤 109호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네 번째 옹관묘는 평안보유적과 동고대산유적에서 보고되었다. 평안보유적은 조사구역 제 I 구의 1001호 주거지(F1001)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높이가 대략 37cm가량 되는 쌍이대관(M1003) 1점이 확인되었는데 내부에는 어린아이의 유골이 담겨져 있어 옹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동고대산에서도 호와 발이 조합을 이루는 파괴된 무덤 1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 6〉 평안보유적 1003호 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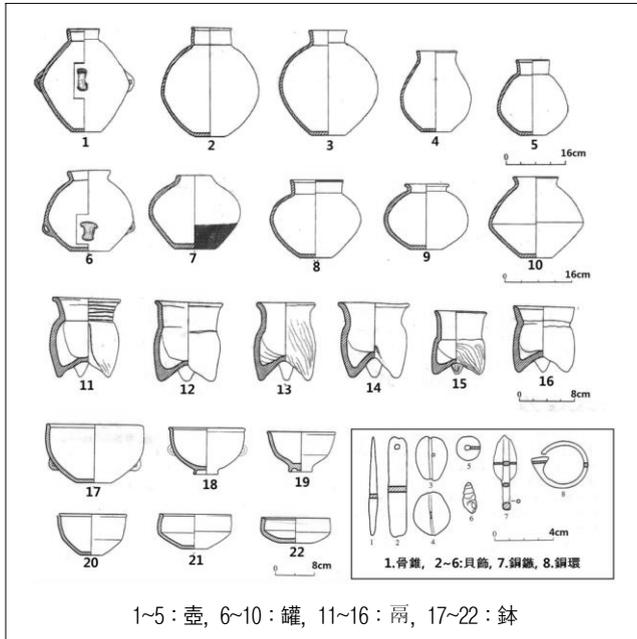
고대산문화에 속하는 옹관묘 1기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구체적인 매장양상은 알 수 없다.²⁶⁾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고대산문화의 묘제를 유적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고대산문화의 유적별 묘제분류

토광묘		목관묘	석관묘	옹관묘
단순토광식	벽감식(기물대 및 분층식포함)			
고대산, 대해읍B류, 평정산, 평안보, 불환지, 만유, 후산	대해, 불환지	동고대산 79호	평정산 106·108호	평안보 1003호, 동고대산

2. 장속특징 검토

다음은 고대산문화의 장속특징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먼저 부신 대해유적에서는 거의 모든 무덤에서 인골이 검출되었다. 대부분 단인장이지만, 1호와 40호 등 2기의 무덤에서는 성인 남녀가 합장된 채로 확인되어 계측된 인골의 총수는 64구이다. 이 중 남성의 인골은 28구, 여성은 24구이며 부식이 심하여 성별을 알 수 없는 것이 12구이다. 장법을 보면 판별이 불가능한 어린아이의 인골 3구를 제외하고, 측신직지장 30구,



〈도 7〉 대해유적 무덤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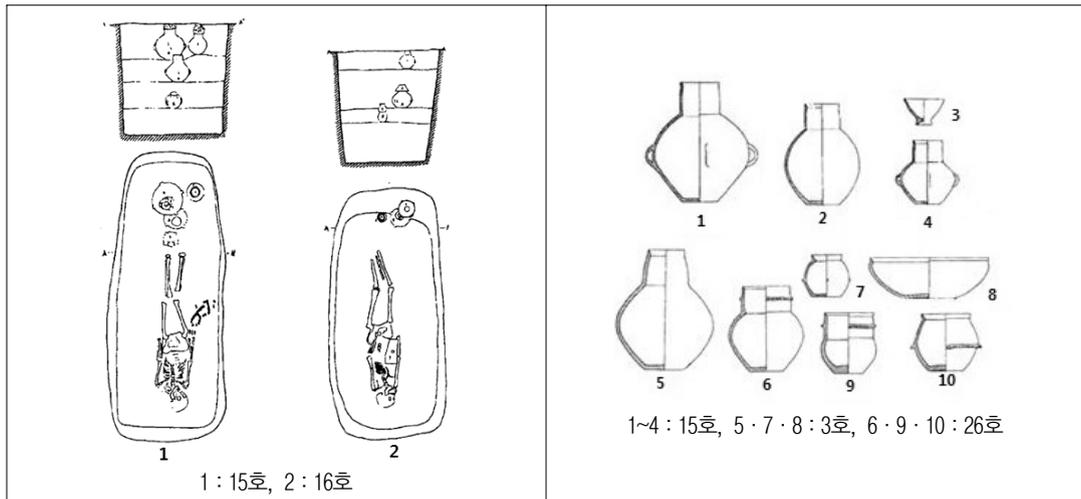
측신굴지장 5구, 양신직지장 21구, 양신굴지장 2구, 부신장 3구 등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현상은 성별을 알 수 있는 대부분의 무덤에서 面向이 서쪽인 것은 남성이, 동쪽은 여성인 것으로 밝혀진 점이다. 따라서 대해유적의 매장 방식은 단인의 측신직지장과 양신직지장 등이 가장 보편적이며, 남성의 경우 서쪽을 향하여 눕히며, 여성은 동쪽을 바라보도록 매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장품은 토기와 청동기, 조개제품 및 장식품 등이 확인되며 출토위치에 따라 다시 2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시신의 발치쪽 혹은 정강이 사이에 부장되는 형태로 대부분 소형의 甗과 鉢, 盂, 壺, 罐 등이며, 개와 돼지

26)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앞의 책, 1982, 125쪽.

의 골격²⁷⁾이 함께 부장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묘광의 남쪽(발치쪽) 단면상에 조성된 별도의 부장공간에 놓인 형태로 대부분 甕과 壺 상부로 鉢이 덮여진 상태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각종 장식품 등은 대부분 사자의 상반신 주위에서 착장상태에 가깝게 출토되었다.

대해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부신 물환지유적에서는 전체 35기의 무덤 중 18기에서 인골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부식된 상태로 검출되었기에 정확한 장식과 성별, 나이 등은 계측이 어렵다. 대체적으로 단인의 축신굴지장이 많지만 양신직지장도 일부 확인된다. 또한 성별과 연령의 판단이 가능한 14기의 무덤 중 여성의 무덤에서만 방추차가 발견되며, 단 1사례(16호)에 불과하지만 남성의 무덤에서만 석도가 출토된 점에 주목된다.²⁸⁾ 이러한 특징 역시大海유적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면향을 각각 다르게 두었다는 점과 비교되어 당시 성별에 따른 장속에 차이를 두었음을 알게 해준다.



〈도 8〉 물환지유적 토광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부장품은 일반적으로 高足鉢 혹은 碗 등이 壺의 상부에 덮여진 채로 확인되는데 묘광내 발치쪽 단면을 1~3층 정도로 계단식 분층을 하여 유물을 부장한 현상이 특징적이다. 대표적으로 전체묘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15호 무덤의 사례를 보면, 25~30세 전후의 여성이 단인의 양신직지장으로 매장되었다. 인골의 목부분에서는 야생의 돼지이빨로 만든 1쌍의 장식품이, 오른쪽 손에서 조개장식품 등이 찾아졌다. 또한 묘광 동쪽의 발치쪽 단면을 모두 3개층으로 분단하여 6점의 토기를 부장하였는데 제1층과 2층에는 각각 토기 1점씩을, 제3층에는 2점의 壺 위로 각각 鉢 1점씩을 덮어 놓았다. 이외에 조사자료가 발표된 3호와 16호, 26호 등에서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어 동류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27) 동물의 殉牲 현상은 모두 6기(19·21·55~57·61호)의 무덤에서 확인되었다. 개와 돼지의 골격이 모두 10개 가량 출토되었는데, 이중 돼지발굽 3개, 완전한 개머리뼈 6개, 개의 아래턱뼈가 2개체에 해당된다.

28) 辛巖, 앞의 책, 1997, 26쪽.

부신 평정산유적의 제Ⅱ기층에서 발굴된 5기의 무덤 역시 모두 단인장에 속한다. 장법은 102호 무덤이 측신굴지장, 103호는 양신직지장, 106호, 107호, 108호 등 3기는 측신직지장이다. 이외에 두향과 면향은 모두 제각각으로 별도의 규칙성은 보이지 않지만 토기류가 시신의 발치쪽에 부장되는 점, 壺 위로 鉢(102호) 혹은 盃(107호)가 덮여져 있는 등 고대산문화의 요소가 확인된다.

이외에 신민 고대산, 공주둔 후산, 창무 평안보유적, 범고 만유유적의 인골은 대부분 부식된 채로 확인되어 명확한 장법은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단인의 측신굴지장 위주이다. 유물의 부장양상을 보면 묘실 발치쪽에 부장된 壺와 鉢의 조합이 특징적이며, 이외에 罐, 碗, 석제 곤봉두, 방추차, 석부, 석검 등이 공반되기도 한다. 무덤내 부장된 토기는 대부분 굵은 모래가 섞인 적색계열이 많고, 갈색과 회색 토기 등도 소량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구운 온도가 높고, 외면이 마연된(紅陶衣) 특징을 보이며, 토기의 구연내측을 돌려 깎아 구순 끝단이 삼각형태를 보이는 점은 이문화의 전형적인 토기특징이 된다.²⁹⁾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표 3〉 고대산문화의 유적별 장속특징

유적	기수	장법	종류	부장품	부장위치	기타
부신 대해	62	단인장 위주, 2기 합장, 측신직지·굴지, 양신직지, 양신굴지, 부신장	토광묘	兩, 鉢, 盃, 壺, 罐, 銅鏃, 銅環, 장식품 등	상반신: 장식품 위주 다리쪽: 兩과 鉢, 盃, 壺, 罐, 동물뼈 등 壁龕 및 기물대(坑): 罐, 壺, 鉢, 碗 등	성별에 따라 面向의 차이
부신 평정산	5	단인, 측신직지·굴지, 양신직지장	토광묘 석관묘	壺, 鉢, 罐, 盃, 高足鉢 등	다리쪽	
부신 물환지	35	단인, 측신굴지, 양신직지장	토광묘	壺, 罐, 碗, 杯, 高足鉢, 銅環, 石刀, 뼈제품, 방추차, 조개장식 등	상반신: 장식품 위주 다리쪽: 토기를 2~3층으로 분층하여 부장	성별에 따라 부장품 차이
신민 고대산	79	단인, 측신굴지장	토광묘 목관묘 옹관묘	壺, 碗, 罐, 高足鉢, 石斧, 石劍, 棍棒頭, 방추차 등	발치쪽	
창무 평안보	17	단인, 측신굴지장	토광묘 옹관묘	壺, 罐, 鉢, 碗, 杯, 장식품	발치쪽	
공주둔 후산	3	단인, 측신굴지장	토광묘	壺, 鉢 등	다리쪽	
범고 만유	1	?	토광묘	鉢	허리쪽	
범고 엽무대	1	?	?	壺위로 鉢이 덮임		

29) 郭大順·張星德, 앞의 책, 2005, 339~340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산문화에서는 단인장이 가장 선호되었으나 일부 중에는 합장의 사례도 보인다. 합장은 대해유적의 1호와 40호 2기에서만 확인되며 모두 성인 남녀의 합장무덤이다. 또한 장법은 측신굴지장이 가장 보편적 이지만 하가점하층문화와의 접경지역인 부신시 일대에서는 측신직지장과 양신직지장 등이 유사한 비율을 보이며, 부신장 등도 소량 확인되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아마도 문화의 외연지대에 위치한 유적들의 특성상 주변문화의 영향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양상은 부신 대해유적의 동물 殉牲 현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9호, 21호, 55~57호, 61호 등 모두 6기의 무덤에서 개와 돼지의 발굽과 머리뼈가 10개체 가량 출토되었는데, 그동안 고대산문화와 관련된 유적 중 무덤 내에서 동물의 골격이 찾아진 것은 창무 평안보유적의 제Ⅲ구 3006호 무덤³⁰⁾에서 출토된 돼지의 어깨뼈가 유일한 사례였다. 묘실 내부에 동물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여 부장하는 장속은 이웃한 요서지역의 하가점하층문화와 위영자문화단계에 보편적으로 유행하였으나 고대산문화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 요소였다. 이 역시 주변문화와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대해유적의 특징상 그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IV. 하가점하층문화와의 비교

하가점하층문화는 요서지역의 초기 청동기시대문화로 고대산문화와는 의무려산을 경계로 그 서쪽지역에 분포한다. 이 문화가 처음 알려진 것은 20세기 초반부터이지만 당시에는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단순히 戰國系의 秦·漢時期文化로만 이해되었다.³¹⁾ 하지만 1960년 赤峰 夏家店과 藥王廟遺蹟³²⁾의 발굴을 통해 그 성격이 밝혀지면서 요서지역에서 출현한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시대문화로 인정받게 된다.

문화의 주요 특징은 발달된 삼족기와 무덤에 부장되는 다양한 형태의 채회토기, 그리고 석성우주의 방어 성 취락유적을 들 수 있으며 그 중심연대는 기원전 20~15세기로 볼 수 있다.³³⁾ 분포범위는 북쪽으로 西拉木倫河에서 남으로는 燕山山脈, 서쪽으로는 河北省 張家口, 동으로는 醫巫閭山에 이른다.³⁴⁾ 이중 유적이 가장 밀집한 곳은 赤峰市 남부의 老哈河流域과 朝陽市 일대의 大·小凌河流域이다.³⁵⁾

그동안 이 문화와 관련된 조사는 대부분 취락유적에 집중된 편이었다. 1970~80년대 실시된 문화재조사를 통해 朝陽市 일대에서만 약 3000여 곳이,³⁶⁾ 赤峰市 일대에서 약 2000곳 이상의 관련유적이 조사되었다.³⁷⁾

3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앞의 책, 1989, 103~104쪽.

31) 濱田耕作·水野清一, 『東方考古學叢刊甲種 第六冊: 赤峰紅山後』, 東亞考古學會, 1938(북기대,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 연구』, 백산 자료원, 2002, 16쪽 주2 재인용); 郭大順·張星德, 앞의 책, 2005, 293쪽.

3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 1974, 111~1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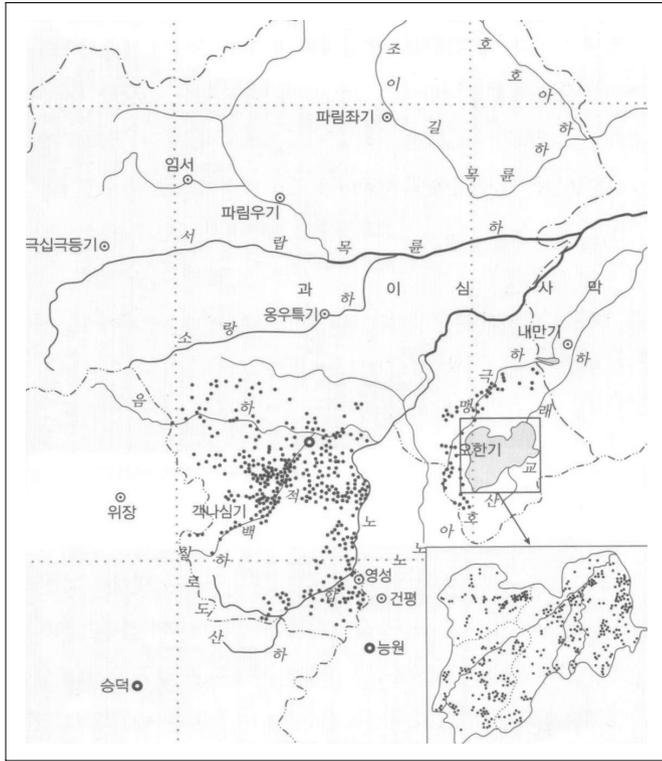
33)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책, 296~297쪽.

34) 이재현, 「하가점하층문화기 방어취락의 성격 연구」, 『요하유역의 초기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17쪽.

35) 席永傑·滕海鍵, 「夏家店下層文化研究術論」, 『赤峰學院學報』 4, 2011, 6쪽.

36) 遼寧省博物館, 「1979年朝陽地區文物普查發掘的主要收藏」, 『遼寧文物』 1, 1980; 吳恩岳斯圖,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2005, 3쪽 주18 재인용.

37) 席永傑·滕海鍵, 앞의 논문, 2011, 6쪽; 吳恩岳斯圖, 위의 책, 2005, 3쪽.



〈지도 2〉 하가점하층문화유적 분포도
(출처 : 이재현, 2009, 23쪽, 〈그림 2〉 전제)

이를 토대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실시된 정밀조사에서는 老哈河와 教來河, 孟克河를 중심으로 분포한 석성유적 1000여 곳 이상이 재확인 되었다.³⁸⁾ 발굴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英金河流域의 석성유적군,³⁹⁾ 康家屯,⁴⁰⁾ 三座店,⁴¹⁾ 上機房營子,⁴²⁾ 城子山,⁴³⁾ 二道井子遺蹟⁴⁴⁾ 등이 있으며, 대부분 성내부에서는 석재나 흙벽돌을 쌓아 만든 각종형태의 주거시설과 성벽, 환호, 치 등의 구조물이 조사되면서 당시에 이미 방어진 성격을 가진 대단위의 취락유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⁴⁵⁾

반면 무덤유적의 조사는 비교적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모두 5곳의 자료가 보고되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敖漢旗 大甸子유적에서 804기,⁴⁶⁾ 范仗子유적

에서 88기,⁴⁷⁾ 阜新 界力花유적(6기),⁴⁸⁾ 平頂山과 北票 豐下유적⁴⁹⁾에서 각 1기씩 등 총 900여기 중 대전자유

38) 王惠德, 「陰河中下流石城的調查與研究」, 『昭烏達蒙族師學報』 4, 1997; 赤峰中美聯合考古項目, 『內蒙古東部(赤峰)區域考古調查階段性報告』, 科學出版社, 2003.
 39) 徐光冀, 「赤峰英金河·陰河流域石城遺址」, 『中國考古學研究-夏鼐先生考古五十年紀念論文集』, 文物出版社, 1986, 82~93쪽.
 4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北票市康家屯城地發掘簡報」, 『考古』 8, 2001.
 41) 郭治中, 「遼寧縣三座店商周至西漢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1988;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赤峰市松山區三座店遺址2005年度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 1, 2006;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內蒙古赤峰市三座店夏家店下層文化石城遺址」, 『考古』 7, 2007.
 42)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赤峰上機房營子西梁石城址2006年考古發掘簡報」, 『邊疆考古研究』 6, 2008.
 43) 李恭篤, 「遼寧凌源縣三官甸子城子山遺址試掘報告」, 『考古』 6, 1986.
 44)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內蒙古赤峰市二道井子遺址的發掘報告」, 『考古』 8, 2010.
 45) 李恭篤·高美璇, 「夏家店下層文化若干問題研究」, 『遼寧省博物館學術論集』 1, 1985;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책, 315~318쪽; 서길수, 「夏家店下層文化的石城研究」, 『고구려발해연구』 31, 2008; 王太一, 「夏家店下層文化的聚落形態研究」,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4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大甸子-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1996.
 47) 內蒙古文物工作隊, 「敖漢旗范仗子古墓群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 3, 1984.
 4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阜新縣界力花青銅時代遺址發掘簡報」, 『考古』 6, 2014.

적 1곳의 자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⁵⁰⁾ 그동안 발굴된 주요유적의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 하가점하층문화의 유적별 묘제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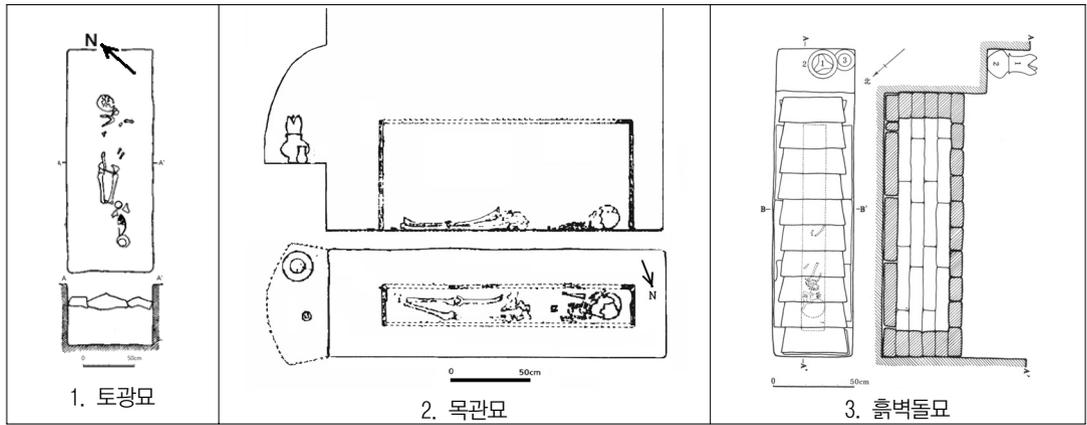
유적	기수	종류(기수)	장법	부장품	부장위치	비고
대전자	804	토광묘(590) 목관묘(209) 벽돌묘(5)	단인장 위주, 소수합장, 측신직지장 위주, 양신직지와, 부신장 소수	甗, 罐, 尊, 爵, 簋, 石婦, 玉器, 방추차, 청동 및 骨 · 石製 장식품, 동물뼈(개 · 돼지)	인골주변 : 장식품, 벽감 · 棺蓋 · 二層臺上 : 토기 및 동물뼈	성별에 따라 면향과 부장품에 차이
범장자	88	토광묘(다수) 목관묘(다수) 석관묘(소수)	단인장, 양신장, 측신장	甗, 罐, 壺, 碗, 석기, 장식품, 동물뼈(개 · 돼지)	인골주변 : 석기와 작식품, 벽감 및 다리쪽 : 토기 및 동물뼈	
계력화	6	토광묘(4) 벽돌묘(2)	단인장, 측신굴지 · 직지장, 부신장	甗, 罐, 盆形鼎, 옥식, 동물뼈(개 · 돼지), 장식품	인골주변 : 장식품, 관개 및 다리쪽 : 토기 및 동물뼈	
풍하	1	토광묘(1)	단인장, 양신직지장	조개껍질, 마노석, 녹송석 등	목주변	토광상부로 석재를 덮음
평정산	1	토광묘(1)	단인장, 양신직지장	壺, 罐, 盂	다리쪽	상동

먼저 무덤의 종류는 크게 토광묘와 목관묘, 흙벽돌묘(土坯墓), 석관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 토광내부에 2단의 계단식 굴광을 조성한 二層臺墓와 토광벽 한쪽면을 길게 파서 시신을 매장한 洞室墓 등이 대전자유적에서 보고되었지만 모두 토광을 그대로 묘실로 활용한 점에서 토광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토광묘는 보고된 숫자만 600여 기 이상으로 당시 가장 보편적인 묘제로 보인다. 목관묘 역시 이 문화를 대표하는 묘제 중 하나로 대전자와 범장자유적에서 대략 210기 이상이 확인되었다. 목관이 설치된 무덤은 대부분 길이 3m 이상, 너비 1~1.5m, 깊이 3~7m 사이로 규모가 매우 크며, 부장공간인 벽감을 비롯하여 목관내부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흙벽돌묘는 진흙을 구워 만든 벽돌을 쌓아 묘실을 조성한 형태이며 대전자와 계력화유적에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석관묘는 토광 내부로 판석재를 간략하게 둘러놓은 형태로서 범장자유적에서만 소량 확인된다.

이처럼 하가점하층문화의 묘제는 토광묘를 위주로 하지만 목관묘의 비중 또한 높은 편이며, 이외에 소량의 흙벽돌묘와 석관묘가 존재한다. 장속을 보면 주로 단인장이 선호되었으나, 대전자유적에서는 성인과 어린 아이가 함께 묻힌 합장묘도 보인다. 구체적인 장법은 측신직지장이 가장 보편적이며, 이외에 양신직지장과

49) 遼寧省幹部培訓班, 「遼寧北票縣豐下遺址1972年春發掘簡報」, 『考古』 3,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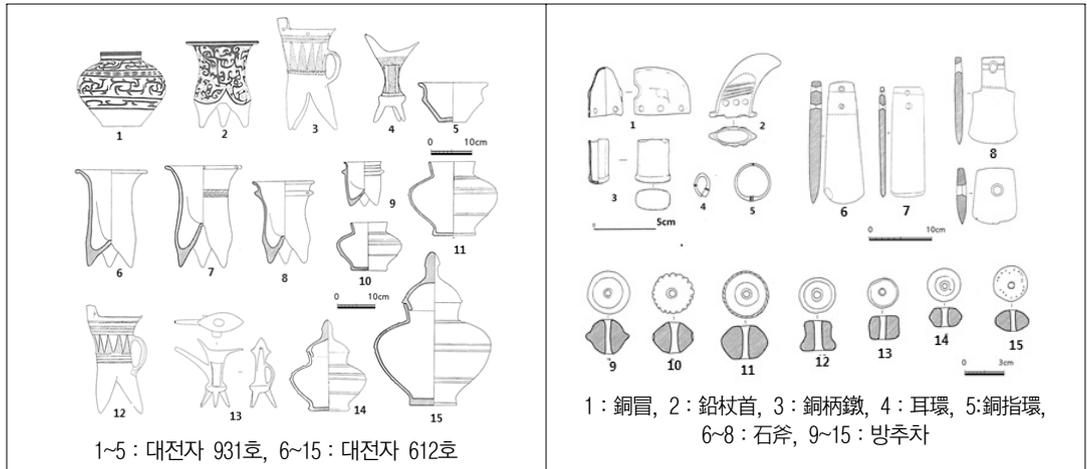
50) 이외에 赤峰市 二道井子遺蹟에서도 대규모의 취락유적과 함께 무덤구역이 조사되었으나, 무덤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표된 바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1. 평정산 109호, 2. 범장자 79호, 3. 대전자 1144호

〈도 9〉 하가점하층문화의 무덤 평·단면도

부신장 등도 일부 확인된다. 대전자와 범장자유적에서는 다수의 무덤에서 묘실 벽면의 발치쪽으로 벽감을 둔 형태가 조사되었다.



〈도 10〉 대전자유적 출토유물 각종

유물은 대부분 이러한 벽감이나 2층대위에 부장되며, 시신을 덮은 뚜껑 상부와 채움토내에서 개와 돼지의 골격과 함께 확인된 사례가 많고, 장식품은 주로 시신 주위에 매납되었다.⁵¹⁾ 부장품의 종류를 보면 대부분 토기가 많은데, 甔과 甗이 가장 보편적이며, 전용 明器로서 尊形甔과 簋, 爵 등이 확인된다. 또한 甔 등 삼

51) 이청규, 앞의 책, 2009, 36쪽.

족기의 표면에 시문된 다양한 형태의 彩繪紋樣은 이문화의 대표성을 가진다. 이외에 옥기와 석부, 방추차, 석주 등의 장식품과 청동구걸이와 반지, 漆木器 등 장식품 등이 특징적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고대산문화의 특징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하가점하층문화와 고대산문화의 묘제 및 장속특징 비교

구분	하가점하층문화		고대산문화	
분포지역	요서지역		부신지역	유하유역 (신민·창무·법고 등)
무덤구조	토광묘, 목관묘, 흙벽돌묘, 석관묘		토광묘, 석관묘	토광묘, 목관묘, 옹관묘
장속 특징	장법	단인장 위주, 소수합장, 측신직지장 위주, 양신직지장, 부신장 등 소수	단인장 위주, 소수합장, 측신직지·굴지장, 양신직지·양신굴지장, 부신장	단인장, 측신굴지장 위주,
	부 장 품	토기 : 鬲, 罐, 尊, 爵, 簋, 壺 등 기타 : 석부, 옥기, 방추차, 청동 및 골·석제장식품	토기 : 鬲, 鉢, 高足鉢, 盂, 壺, 罐 등 기타 : 銅鏃, 銅環, 석도, 방추차, 장식품 등	토기 : 壺, 碗, 罐, 高足鉢 등 기타 : 銅刀, 銅環, 곤봉두, 방추차, 석부, 석검, 석도, 장식품 등
	순생	개와 돼지의 머리뼈와 발굽	개의 머리뼈와 돼지 발굽	돼지 어깨뼈
	부장 위치	시신의 발치 쪽 및 벽감내부, 棺蓋上, 2層臺上 토기와 동물골격을 부장, 장식품은 시신주변에 위치	벽감과 2層臺(坑) 위에 유물 부장, 장식품은 시신 주변에 위치	시신의 발치 쪽에 토기 부장
	기타	인골의 面向과 부장품에 따라 피장자의 성별이 구분, 남성(面向西)은 석부, 여성(面向東)은 방추차 부장	인골의 面向과 부장품에 따라 피장자의 성별이 구분, 남성(面向西)은 석도, 여성(面向東)은 방추차부장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대산문화의 주요묘제는 토광묘이며 소량의 목관묘와 석관묘 등이 사용된 점에서 하가점하층문화와 유사점을 보인다. 하지만 하가점하층문화에서는 목관묘의 비중이 보다 높으며, 옹관묘가 발견되지 않는 등 차이가 있다.

또한 고대산문화의 장법은 측신굴지장이 가장 보편적이며 이외에 측신직지장과 양신직지장, 부신장 등도 소량 확인된다. 하지만 개별유적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채용된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요서지역에 보다 가까운 부신지역의 경우 측신직지장과 굴지장 및 양신장계열의 무덤이 고르게 확인되어, 하가점하층문화와 유사한 반면 이외의 유적에서는 측신굴지장의 비율이 앞도적인 우세를 보인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은 피장자의 성별에 따른 얼굴의 방향(面向)과 부장품차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부신 대해유적에서는 성별이 판별되는 거의 모든 무덤에서 남성의 면향은 서쪽을, 여성은 동쪽을 향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물환지유적에서는 여성묘에서만 방추차가 출토되었으며, 남성의 무덤에서는 석도가 찾아졌다. 동일한 현상이 하가점하층문화의 대전자유적에서 찾아져 비교가 된다. 남성의 경우 면

향이 서쪽을 향하며, 여성은 동쪽을 바라보게 매장되었고, 석부가 출토된 사례는 모두 남성의 무덤이며, 여성의 무덤에서는 거의 대부분 방추차가 출토되었다. 또한 묘실내 발치쪽으로 벽감을 설치하여 부장품과 동물의 골격을 함께 부장하는 습속은 하가점하층문화의 무덤에서 찾아지는 주요 특징이 된다.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간취되지만 부신지역의 대해유적과 물환지유적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는 점은 양자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고대산문화 역시 단인장이 가장 선호되었으나 일부 중에는 합장의 사례도 확인된다. 합장은 대해유적의 1호와 40호에서만 확인되며, 모두 성인 남녀가 함께 묻혔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2기의 무덤 모두 묘실내에서 하가점하층문화계열의 토기(鬲)가 공반되는 점이다. 1호에서는 2점의 鬲과 1점의 鉢이 인골의 발치쪽에 부장되었고, 40호에서는 발치쪽으로 鬲 1점이, 器物臺 위에서 壺 상부로 鉢이 덮여진 조합관계가 보인다.⁵²⁾ 즉, 고대산문화와 하가점하층문화의 요소가 더불어 확인되는 점이 특징적인데, 만약 위의 두 무덤을 부부가 합장된 것으로 전제 한다면 단순히 문화적인 교류상을 넘어 보다 다양한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자료로서 상호 인접한 곳에 위치한 대해유적과 계력화유적의 인골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대해유적의 주민집단은 ‘古華北類型’인 고대산문화의 평안보집단과 夏家店上層文化의 小黑石溝集團에 가장 가까운 결과치를 보였으며, 두 번째로 하가점하층문화의 대전자집단과의 유사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古東北類型’에 속하는 廟后山集團 및 平洋, 井溝子集團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였다.⁵³⁾ 이러한 사실은 대해유적의 주민집단이 기본적으로 고대산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 하가점하층문화와는 혼인과 같은 종족적 결합을 통해 형질적 유사성을 공유하게 되었고, 추후 하가점상층문화의 형성과정에 주요한 성분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두 번째,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계력화유적은 대해유적의 서쪽 5km지점에 위치한다. 이 유적의 주민집단 역시 고화북유형인 평안보와 대전자집단에 근접한 결과를 보였으며, 고동북유형의 평양 및 서단산집단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⁵⁴⁾ 대해유적의 무덤이 조성된 시기는 범장자 및 대전자유적군과의 비교를 통해 동시기로 설정되었다.⁵⁵⁾ 계력화유적 또한 대전자유적과 동일한 구조의 흙벽돌무덤이 조성된 점, 부장습속의 유사성 등에 근거하여 비슷한 시기로 파악된다.⁵⁶⁾ 대전자유적에서 측정된 절대연대값이 대략 기원전 17~15세기⁵⁷⁾로 편년되는 관계로 위의 두유적은 하가점하층문화의 중후기단계에 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계통을 달리하면서 형질적 특징이 유사한 두유적의 주민들간에는 상호 빈번한 왕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대산문화의 전반기와 하가점하층문화의 후반기에 해당되는 이시기 단순히 문화상의 교류를 넘어 혼인과 같은 종족적 결합도 성사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겠다.

5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앞의 책, 2013, 22~23쪽, 77~78쪽.

5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위의 책, 2013, 154~155쪽.

5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앞의 책, 2014, 18~19쪽.

55)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앞의 책, 2013, 125~126쪽.

5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앞의 책, 2014, 17쪽.

5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앞의 책, 1996, 208쪽.

한편 부신지역에 위치한 또 다른 유적인 평정산유적에서는 하가점하층문화 - 고대산문화 - 위영자문화 순으로 연결되는 3개의 문화층위가 확인되었다. 그중 하가점하층문화층에서 출토된 자료는 북표 풍하유적 후기단계 및 오한기 범장자, 대전자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평정산 I기층 역시 하가점하층문화의 중후기유적으로 볼 수 있다.⁵⁸⁾

주목되는 현상은 제 II기의 고대산문화층에서 확인되는 5기의 무덤구조이다. 이중 2기는 석관묘로서 108호 무덤은 평평한 석재를 쌓아 4벽을 만들었고 그 위에 다시 석재를 덮은 구조이며, 나머지 106호는 묘실의 동벽 한쪽에만 석재를 2~3층 쌓고 그 위로 판석을 덮었다. 이외에 동일 층에서 조사된 3기의 무덤은 순수 토광묘로서 묘광상부에 몇 개의 판석재를 덮어 놓은 형태로 I기층의 109호 무덤과 동일한 구조이다(〈도 5〉). 이상 5기의 무덤들은 모두 묘실내 출토유물 조합에 근거하여 고대산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산문화의 관련유적 중 석관묘의 사례가 보고된 것은 평정산 II기가 유일하여 다소 어색한 면이 있다.

보고서에서는 평정산 II기에 속하는 무덤들을 부장유물의 조합 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별하였다. 먼저 102호, 103호, 106호, 108호 등 4기는 鉢이나 盂가 壺에 덮여 있는 현상 혹은 大口罐 1점씩이 부장된 점 등 대체적으로 고대산문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⁵⁹⁾ 하지만 103호와 106호무덤에서 출토된 大口罐은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I기층의 109호무덤 출토품과도 닮아 있어 단순히 고대산문화의 요소로만 보기는 힘들다(〈도 5〉 2-3, 3-8·10). 나머지 107호에서는 고대산문화의 전형토기인 적색의 마연토기(壺)와 함께 하가점하층문화의 마광흑도(盂)가 공반된 점에 두 문화가 복합된 양상으로 해석하였다(〈도 5〉 2-4·7).

그동안 두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점이 있어왔지만 대체적으로 하가점하층문화 후기단계에 가면서 양자의 교류 및 영향관계가 강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⁰⁾ 또한 최근에는 평정산유적 II기층의 문화성격에 대해 하가점하층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 두 문화의 교류관계에 의해 고대산문화의 요소가 반입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⁶¹⁾ 따라서 평정산 II기층의 문화성격은 앞에서 살펴본 대해유적 및 물환지유적과는 조금 다른 방식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대해와 물환지유적은 기본적으로 고대산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 하가점하층문화의 요소가 반입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두집단간의 단순한 문화적 교류상을 넘어 혼인과 같은 종족적 결합문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의미한 추론이 가능하다.

평정산유적은 고대산문화가 유입되기 이전에 이미 하가점하층문화의 집단이 선거주한 상태였다. I기층과 II기층의 토광묘가 동일한 구조를 보이면서, 하가점하층문화의 요소가 II기층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은 두 문화층의 간격이 그리 길지 않음을 말해준다. II기층에서는 새롭게 고대산문화의 요소가 추가되면서 석관묘라는

5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앞의 책, 1992, 415~4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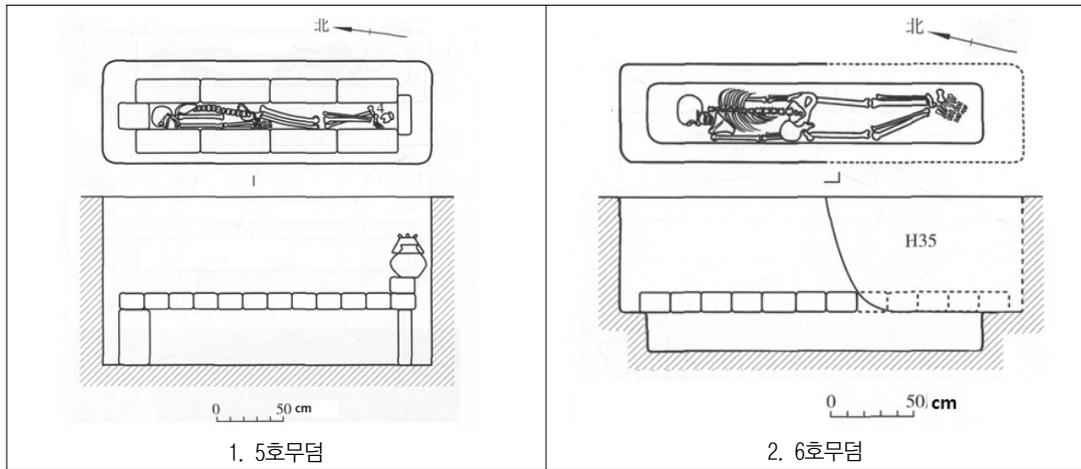
5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앞의 책, 1992, 415~416쪽.

60) 董新林, 「高臺山文化研究」, 『考古』 6, 1996, 62~63쪽; 복기대, 앞의 논문, 2003, 22~25쪽; 송호정, 앞의 책, 2009, 207쪽.

61) 천선행, 앞의 논문, 2010, 56쪽.

이질적인 형태의 묘제가 출현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고대산문화의 한 부분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구조의 무덤이 부신 계력화유적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확인되어 참고할 수 있다.

계력화유적에서는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주거지 7기와 회갱 40기, 무덤 6기 등이 발굴되었다. 이중 4기의 무덤은 토광묘이며, 나머지 2기는 흙벽돌묘에 속한다. 흙벽돌묘의 구조를 보면 5호의 경우 깊게 판 토광내부로 크기가 균일한 흙벽돌을 쌓은 후 그 상부로 다시 여러 개의 흙벽돌을 이어 덮었다. 또한 덮개의 남쪽 끝단에는 1개의 벽돌을 더 올린 후, 그 위로 甗, 罐, 盆形鼎 등 토기 3점을 놓았으며 덮개의 중간지점에는 돼지발굽 4개를 부장하였다.⁶²⁾ 나머지 6호는 먼저 묘광을 2단으로 굴착한 후 그 하단의 토광을 그대로 묘실로 이용하며 상단에는 여러 개의 흙벽돌을 이어 덮었다.



〈도 11〉 부신 계력화유적 흙벽돌묘 평·단면도

이러한 방식은 앞서 살펴본 평정산 Ⅱ기층의 석관묘 및 묘광상부에만 판석을 덮어 놓은 형태의 토광묘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진흙을 빚어 만든 벽돌은 높은 열기에서 굽거나 말릴 경우 매우 높은 경도를 보이기 때문에 무덤에 사용되는 葬具로서 석재와 유사한 기능을 갖출 수 있다. 단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벽돌묘의 구조는 석관묘의 범주에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⁶³⁾ 이

62) 그동안은 이러한 구조의 묘제가 대전자유유적에서만 소량 발견되는 관계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특수한 사례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문화의 외연지대인 부신지역에서도 동일한 구조의 묘제가 찾아지는 점에서 추후 보다 많은 자료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63) 이러한 구조의 석관묘는 하가점하층문화의 중후기단계유적인 오한기 범장자유유적에서도 조사되었다. 범장자유유적에서는 크게 A, B, C로 구분되는 3개의 묘역에서 모두 88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대부분 단순 토광묘이거나 목관묘의 구조를 보이지만 일부 중에는 시신의 상부에 몇 개의 판석을 덮어 놓은 것과 내벽 돌레를 따라 여러 개의 판석을 이어 세운 석관형태도 확인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소형 석관묘로 명기하였지만 전자의 경우 평정산 Ⅰ기의 109호 무덤과 같은 구조였으나 묘광상부에 덮었던 판석제가 무너져 내린 현상으로 추정되며, 후자는 평정산 Ⅱ기의 106호 및 108호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따라서 하가점하층문화에서 확인되는 흙벽돌묘와 석관묘 역시 葬具로 사용된 재료의 차이만 보일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렇게 볼 때 평정산 II기층의 석관묘제는 고대산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새롭게 출현한 것이 아니라, 전단계의 하가점하층문화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함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평정산 II기층은 하가점하층에서 고대산문화로의 전환이 아니라 하가점하층문화가 그대로 존속한 상태에서 고대산문화와의 교류 혹은 주민이 유입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⁶⁴⁾

그동안 부신지역은 하가점하층문화의 동쪽경계지점으로서 고대산문화와의 문화적 공동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계력화유적과 평정산 I기층과 같이 하가점하층문화의 중후기단계 유적이 간헐적으로나마 확인되는 점에서 당시 이 지역은 하가점하층문화의 영향이 보다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이 지역일대에서는 전형적인 형태의 고대산문화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하가점하층문화의 요소와 공반된 채로만 확인되는 점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요컨대, 부신지역은 하가점하층문화를 기반으로 하되 고대산문화의 요소와 상당부분 공존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앞서 고대산문화의 전반기에 이미 단순히 문화상의 교류를 넘어 혼인과 같은 종족적 결합이 성사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고대산문화의 형성초반부터 하가점하층문화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하가점하층문화의 중심 분포지인 오한기 대전자와 범장자 유적에서도 고대산문화의 흔적이 나타나는 점을 통해 충분히 유추 할 수 있다.⁶⁵⁾ 두유적은 모두 하가점하층문화의 중후기단계에 속하는 기원전 17~15세기대로 편년된다. 고대산문화의 형성기에 해당되는 이시기 하가점하층문화의 중심분포권까지 고대산문화의 요소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배경에는 두 문화 사이의 문화적 친밀감이 강하게 내재된 것으로 이해된다.

위에서 살펴본 계력화유적의 문화속성은 모두 하가점하층문화에 귀속되며, 고대산문화의 요소는 검출되지 않았다.⁶⁶⁾ 하지만 계력화유적의 인골자료는 창무 평안보유적과 동일한 고대산문화 집단의 형질특징을 보유한 점에서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는 계력화단계 이전에 이미 두집단간에 형질적 특성이 공유되었던가, 혹은 본래부터 이들은 유사한 계통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느 쪽이든 간에 고대산문화 초반기부터 두지역의 문화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당시 두집단간에는 혈연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론은 계력화유적에 인접한 대해유적의 사례를 통해 보다 명확해진다. 대해유적의 갑류 무덤에서는 하나의 무덤내부에 두 문화의 매장풍습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반적으로 무덤의 구성과 그에 수반되는 상징의례는 주로 가족단위의 혈연을 기반으로 한 관계속에서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의례 속에는 그것을 조영한 집단만의 고유한 사유체계와 전통이 반영되어 있기에 한번 고착화되면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⁶⁷⁾ 따라서 동일한 하나의 무덤내부에 서로 다른 두집단의 장속이 복합되어 있는 현상은 이들이 혈연적으로 관계되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대산문화는 이후 대릉하유역을 중심으로 발전된 위영자문화의 형성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

64) 천선행, 앞의 논문, 2010, 56쪽.

65) 朱永剛, 앞의 논문, 1991, 1904쪽.

6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앞의 책, 2014, 17~18쪽.

67) 이영문, 『한국 지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02, 18~19쪽.

약된다.⁶⁸⁾ 물론 두 문화사이의 강한 동질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연관성에 회의적인 입장도 존재하지만,⁶⁹⁾ 위영자문화의 특징적인 筒腹隔, 雙耳壺, 外疊脣盆과 圈足鉢 등의 요소는 고대산문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체적으로 수용되고 있다.⁷⁰⁾ 위영자문화는 기본적으로 당지의 하가점하층문화를 바탕으로 고대산문화와 북방지역 청동기문화 요소를 수용하여 형성되었고, 더불어 西拉木倫河流域의 하가점상층문화의 배격을 받으면서 그 중심 분포지가 대릉하유역에 도달하였다는 견해도 참고 할 수 있다.⁷¹⁾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위영자문화의 형성배경에는 하가점하층문화를 비롯한 고대산문화의 영향이 다소 간 작용된 듯하다. 하지만 위영자문화의 시작연대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13세기 전후로 편년되기 때문에⁷²⁾, 하가점하층문화의 종속연대인 기원전 15세기와는 일정기간 공백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하가점하층문화와 위영자문화의 계승성을 논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자주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두 문화사이에서 확인되는 시간적 공백기에 대하여 당시 부신지역의 문화상을 주목하고자 한다. 하가점하층문화의 후반기 부신지역에서는 하가점하층문화를 기반으로 고대산문화가 복합된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는 단순히 문화적인 교류상을 넘어 혼인과 같은 집단간의 혈연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묘제와 장속특징을 통해 볼 때 하가점하층문화의 후반기 대릉하유역의 대전자집단 중 일부가 부신지역의 계력화유적으로 진출하였고 이들은 대해유적과 평정산유적을 표지로 한 지역에서 고대산문화의 주민과 한동안 공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평정산 Ⅲ기층에서 위영자문화가 등장하기 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신지역에는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하가점하층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부신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두 문화간의 유사성과 교류상은 주로 혼인과 같은 주민집단의 유입에 기반을 두었으며, 하가점하층문화의 소멸이후 부신지역에서 고대산문화와 공생하였던 잔류 세력이 재차 대릉하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위영자문화의 형성에 한 부분을 담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고대산문화의 묘제와 장속특징을 분석하여 하가점하층문화와의 상관성 및 그 교류상에 대한 의미를 검토하였다. 아래에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고대산문화와 관련된 무덤자료는 고대산, 대해, 물환지, 평안보, 평정산, 후산, 만유, 염무대유적 등 모두 8곳에서 대략 200여기 가량이 보고되었다. 이상의 유적에서 확인된 고대산문화의 묘제는 크게 토광

68) 郭大順, 1987, 앞의 글, 91~93쪽; 朱永剛, 1998, 앞의 글, 134~137쪽; 董新林, 2000, 앞의 글, 8~9쪽.

69) 천선행, 「비파형동검 성립전후 요서지역 토기문화의 전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2010, 249~250쪽.

70) 朱永剛, 앞의 논문, 1991, 1905쪽.

71) 吳恩岳斯圖, 2005, 앞의 책, 107~108쪽.

72) 董新林, 앞의 글, 2000, 8쪽.

묘, 목관묘, 석관묘, 옹관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토광묘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장법은 주로 단인의 측신굴지장이 많지만 양신직지장과 부신장 및 남녀 합장묘도 소수 확인된다. 부장품은 일반적으로 다리쪽에 1~5점 정도의 토기를 부장하며, 壺와 甕, 鉢, 혹은 壺와 鉢의 조합으로서 鉢을 壺위에 덮어놓은 상태로 확인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개별유적별로 살펴보면 지역특성에 따라 채용된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부신지역에서는 측신장과 양신장계열의 무덤이 고르게 확인되어 하가점하층문화와 유사한 반면 나머지 유적에서는 측신굴지장의 비율이 앞도적인 우세를 보인다.

또한 부신지역에서는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인골의 면향과 부장품의 종류가 차이를 보이거나 벽감을 설치하여 토기와 동물의 골격을 함께 부장하는 등 두 문화의 장속이 복합된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여기에는 단순히 문화적인 교류상을 넘어 혼인과 같은 종족적 결합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자료로서 두 문화 주민들의 형질특징이 복합적으로 확인되는 대해유적과 계력화유적의 인골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원전 15세기를 전후하여 하가점하층문화가 소멸된 이후 대릉하유역에서는 위영자문화가 발전되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위영자문화의 형성배경에는 하가점하층문화를 비롯한 고대산문화의 영향이 다소 간 작용된 듯하다. 하지만 위영자문화의 시작연대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13세기 전후로 편년되기 때문에, 하가점하층문화의 종속연대인 기원전 15세기와는 일정기간 공백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하가점하층문화와 위영자문화의 계승성을 논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자주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두 문화사이에서 확인되는 시간적 공백기에 대하여 당시 부신지역의 문화상을 주목하였다. 묘제와 장속특징을 통해 볼 때 하가점하층문화의 후반기 이 문화의 주민 중 일부가 부신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고대산문화의 주민과 한동안 공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평정산 Ⅲ기층에서 위영자문화가 등장하기 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신지역에는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하가점하층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부신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두 문화간의 유사성과 교류상은 주로 혼인과 같은 주민집단의 유입에 기반을 두었으며, 하가점하층문화의 소멸이후 부신지역에서 고대산문화와 공생하였던 잔류세력이 재차 대릉하유역으로 파급되면서 위영자문화의 형성에 한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상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하가점하층문화의 소멸 이후 요서지역에서 전개된 제문화들간의 상호연관성과 그 시·공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형성과정 중에는 고대산문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만큼, 최근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이 지역 청동기시대 인골자료와 함께 비교가 된다면 보다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관점에서 출발하여 일차적으로 고대산문화와 하가점하층문화의 묘제와 장속특징을 비교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로서 위영자문화를 비롯한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의 묘제와 장속특징을 지역별·시기별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요동지역과의 종합적인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최종적으로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묘제와 문화의 원류를 파악하는데 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복기대,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 연구』, 백산 자료원, 2002.
- 복기대, 「고대산문화에 대하여」, 『백산학보』 65, 2003.
- 서길수, 「夏家店下層文化的 石城研究」, 『고구려발해연구』 31, 2008.
- 송호정, 「고대산문화를 통해 본 요서와 요동의 역사·문화적 관계」,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 역사재단, 2009.
- 이영문, 『한국 지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02.
- 이재현, 「하가점하층문화기 방어취락의 성격 연구」, 『요하유역의 초기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천선행, 「비파형동검 성립전후 요서지역 토기문화의 전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2010.
- 郭大順·張星德, 『東北文化與幽燕文明』, 江蘇教育出版社, 2005.
- 郭治中, 「遼城縣三座店商周至西漢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1988.
-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赤峰上機房管子西梁石城址2006年考古發掘簡報」, 『邊疆考古研究』 6, 2008.
-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赤峰市松山區三座店遺址2005年度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 1, 2006.
-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內蒙古赤峰市三座店夏家店下層文化石城遺址」, 『考古』 7, 2007.
-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內蒙古赤峰市二道井子遺址的發掘報告」, 『考古』 8, 2010.
- 內蒙古文物工作隊, 「敖漢旗范仗子古墓群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 3, 1984.
- 董新林, 「高臺山文化研究」, 『考古』 6, 1996.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遼寧彰武平安堡遺址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1989.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阜新縣界力花青銅時代遺址發掘簡報」, 『考古』 6, 2014.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 1974.
- 徐光冀, 「赤峰英金河·陰河流域石城遺址」, 『中國考古學研究-夏鼐先生考古五十年紀念論文集』, 文物出版社, 1986.
- 席永傑·滕海鍵, 「夏家店下層文化研究術論」, 『赤峰學院學報』 4, 2011.
- 新民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新民縣公主屯後山遺址試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 1987.
- 新民縣文化館·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新民高臺山新石器時代遺址1976年發掘簡報」, 『文物資料叢刊』 7, 1983.
- 辛巖, 「阜新勿歡也遺址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1997.
-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瀋陽新民縣高臺山遺址」, 『考古』 2, 1982.
-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新民東高臺山第二次發掘」, 『遼海文物學刊』 1, 1986.
- 吳恩岳斯圖,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2005.
- 王太一, 『夏家店下層文化的聚落形態研究』,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王惠德, 「陰河中下流石城的調查與研究」, 『昭烏達蒙族師學報』 4, 1997.
- 遼寧大學歷史系考古教研室·鐵嶺市博物館, 「遼寧法庫縣灣柳遺址發掘」, 『考古』 12, 1989.
- 鐵嶺市博物館, 「法庫縣灣柳街遺址試掘報告」, 『遼海文物學刊』 1, 1990.
- 遼寧省幹部培訓班, 「遼寧北票縣豐下遺址1972年春發掘簡報」, 『考古』 3, 1976.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北票市康家屯城地發掘簡報」, 『考古』 8, 2001.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遼寧阜新平頂山石城址發掘報告」, 『考古』 5, 1992.
- 遼寧省博物館, 「1979年朝陽地區文物普查發掘的主要收藏」, 『遼寧文物』 1, 1980.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代海墓地』, 文物出版社, 2013.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遼寧彰武縣平安堡遺址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1989.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遼寧彰武平安堡遺址」, 『考古學報』 4, 1992.
- 李恭篤, 「遼寧凌源縣三官甸子城子山遺址試掘報告」, 『考古』 6, 1986.
- 李恭篤·高美璇, 「夏家店下層文化若干問題研究」, 『遼寧省博物館學術論集』 1, 1985.
- 赤峰中美聯合考古項目, 『內蒙古東部(赤峰)區域考古調查階段性報告』, 科學出版社, 2003.
- 曹桂林·許志國, 「遼寧法庫縣灣柳街遺址調查報告」, 『北方文物』 2, 1988.
- 朱永剛, 「論高臺山文化及遼西青銅器文化關係」, 『中國考古學會 第8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9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大甸子-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1996.
- 濱田耕作·水野清一, 『東方考古學叢刊甲種 第六冊: 赤峰紅山後』, 東亞考古學會, 1938.
- 鐵嶺地域藝術館, 「遼北地區原始文化遺址調查」, 『考古』 2, 1981.
- 華陽·付珺·霍東峰, 「新樂上層文化墓葬淺析」, 『東北史地』 2, 2009.

* 이 논문은 2016년 11월 25일에 투고되어,
2016년 12월 6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12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2월 30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Investigation on Characteristics of Burial System and Funeral Customs of Gaotaishan Culture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Xiajiadian-xiaceng Culture —

Oh, Daeyang*

This study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burial systems and funeral customs of Gaotaishan Culture with Xiajiadian-xiaceng Culture and investigated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cultures and significance of their cultural exchang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Burial system of Gaotaishan culture is largely classified into pit tomb, wooden coffin tomb, stone-coffin tomb, and jar-coffin tomb, among which pit tomb was most popularly used. As for burial methods, main. Burial method was to lay the single crouching body on its side, but few bodies were found with their face down and few male and female bodies were found together in a single grave. Seeing the relics by individual tomb, there were som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burial application method by region. In Fuxin region, tombs with the crouching body buried on its side and buried the body laying straight on the back were found in balanced ratio, which is similar to Xiajiadian-xiaceng Culture. On the other hand, in other regions, burial method to lay the crouching body on its side overwhelmingly preferred to other burial methods.

Also in Fuxi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irection of the face of the body and the types of grave goods according to the sex of the body. Some were buried with earthen wares and animals bones together by installing alcoves. All of those show the combined patterns of funeral customs of the two cultures, from which intertribal union is also suspected through marriage beyond simple cultural exchange. For the evidences of such assumption, analysis results of human bones found in Dai Hai culture and Jielihua culture can be utilized.

From the above mentioned, it seems that some of the residents of Xiajiadian-xiaceng Culture in late era of the culture moved to Fuxin and live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of Gaotaishan culture. Such trend continued until Weiyngzi culture emerged in the third phase of Pingdingshan relics,

*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from which it is assumed that the vestiges of Xiajiadian-xiaceng Culture sustained till relatively long in Fuxin. In sum, the similarities and exchange patterns between two cultures centering around Fuxin region were based on the inflow of resident groups through marriage, etc. After the extinction of Xiajiadian-xiaceng Culture, those who sustained Xiajiadian-xiaceng Culture by living together with Gaotaishan culture in Fuxin were gradually spread to Dalinghe basin, and took the partial role in forming Weiyngzi culture.

[Key Words] Gaotaishan culture, Xiajiadian-xiaceng Culture, Weiyngzi culture, Fuxin region, Daihai relics, Dadianzi relics

